

# 소녀시대·원걸·카라...2세대 걸그룹들이 돌아온다

소녀시대 5년 만에 완전체 정규앨범  
원더걸스 선예·카라 니콜, 솔로발매

소녀시대·원더걸스·카라 등 시대를 풍미한 2세대 걸그룹들이 돌아오고 있다. 블랙핑크·트와이스 같은 3세대와 에스파·있지(ITZY)·아이브 등의 4세대 사이에서도 존재감이 여전하다.

우선 데뷔 15년 만에 솔로 가수로 나서는 그룹 '원더걸스' 출신 가수 선예(SUNYE)가 눈길을 끈다.

선예는 26일 첫 번째 솔로 앨범 '제뉴인(Genuine)'을 발매한다. 지난 19일 리드 싱글 '글래스 하트(Glass Heart)'를 선공개하며 첫 솔로 활동을 예고했다.

소속사 블루베리크리에이티브는 '제뉴인'엔 가장 진심된 선예의 모습을 찾는 과정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솔로 가수로 첫발을 내딛는 선예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최대한 진실되게 꺼내어보려 노력한 앨범이라는 것이다.

선예는 '글래스 하트'를 포함해 타이틀곡 '저스트 어 댄서(Just A Dancer)' 등 수록곡 총 4곡의 작사에 참여했다.

카라 출신 가수 니콜(Nicole)은 8년 만에 국내 가요계에 컴백한다. 27일 오후 12시 새 디지털 싱글 '유에프오(YOU.F.O)'를 공개한다. '유에프오'는 새로운 사랑의 감정을 우주에 비유했다. 제목은 'U.F.O'와 '유 윌 파인드 어웨이 갤럭시(You will find our galaxy)'의 이중적인 의미를 담았다.

니콜은 솔로로 나선 이후 국내에서 미니앨범 '퍼스트 로맨스(First Romance)', 일본에서 정규앨범 '블리스(Bliss)'와 다수의 싱글을 발매하며 활동했다.

소녀시대는 완전체 활동에 나선다. 오는 8

월8일 정규 7집 '포에버 원(FOREVER 1)'을 발매한다. 2017년 정규 6집 '홀리데이 나이트(Holiday Night)' 이후 5년 만에 발표하는 정규 앨범이다. 2세대 걸그룹 중 유일하게 해체하지 않고, 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팀이기도 하다.

2007년 8월5일 싱글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한 소녀시대는 한류를 확장한 대표 걸그룹 중 한 팀이다. '지(Gee)', '소원을 말해봐'(Genie), '라이온 하트(Lion Heart)' 등 발표하는 곡마다 히트를 기록했다.

해체는 했지만, 올해 깜짝 문천 팀들이 있다.

그룹 '투애니원(2NE1)'은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인디오에서 열린 미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 2022(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 2022)'에서 깜작 등장해 대표곡 '내가 제일 잘나가'를 불렀다. 리더 씨엘(CL)을 비롯 멤버 4명이 6년4개월 만에 완전체 무대를 선보였다.

씨스타는 지난 22일 방송된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마지막 방송에서 해체 5년 만에 완전체 무대를 선보였다. 멤버들은 최근 세 번째 미니 앨범 '아이스(ICE)'로 컴백한 효린에게 힘을 실어줬다.

해체한 그룹들도 컴백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카라는 최근 15주년을 기념해 팀을 거쳐간 멤버들이 기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우정을 과시했다. 올해 깜작 싱글을 발매할 가능성이 있다. 카라 소속사 DSP미디어를 마마무 소속사 RBW가 인수했는데 새로운 출발 차원에서 회사의 유산인 카라의 브랜드



를 활용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반대로 YG엔터테인먼트가 상표권을 갖고 있는 2NE1의 경우 다른 형식으로 네 멤버가 뭉쳐 신곡을 발매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2세대 걸그룹은 같은 세대 보이그룹과 함께 한류를 연 세대다.

2007년 소녀시대, 원더걸스, 카라가 나란히 데뷔하면서 K팝이 본격적으로 해외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소녀시대와 카라는 일본에서 양대 K팝 걸그룹으로 통했고 원더걸스는 K팝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진입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국민 걸그룹으로 불렸다. 국내 남녀노소 누구나 이들을 알았고, 해외에서도 인지도를 쌓았다. 팀에서 이탈한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중화권에서 개별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도 소녀시대라는 간판 덕분이다.

이밖에도 역대 걸그룹 중 가장 진보적이고 실험적인 음악을 선보였다는 평을 듣는 에프엑스(f(x)), 멤버들의 개성과 감기는 음악이 시너지를 내며 인기를 누린 2NE1을 비롯 미쓰에이, 씨스타, 포미닛, 에프터스쿨, 시크릿, 걸스데이, 에이핑크, 헬로비너스 등 2010년대 초반까지 데뷔한 2세대 걸그룹들은 다양

한 개성으로 무장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2016년 이화여대의 학내 시위 현장에서 투쟁가 대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지면서 아이들이 단지 대중문화의 아이콘을 넘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만든 지점도 2세대 걸그룹의 공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1세대 아이돌 그룹과 함께 이겨낸 세대들이 1세대 아이돌에 대한 애증으로 이들을 놓지 못하는 것처럼, 2세대 아이돌과 힘겨운 시절을 관통한 2030 역시 이들을 세월의 일부분처럼 여긴다. 2030이 현재 문화 소비의 중심인 만큼 2세대 아이돌이 활동을 이어갈 시장은 여전히 존재한다.

AOA의 설현, 마마무의 문별 등이 롤모델로 꼽는 소녀시대 리더 겸 솔로 가수 태연의 경우처럼 후배 걸그룹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며 젊은 팬들이 계속 유입되는 것도 2세대 걸그룹의 생명력 연장에 한몫한다. 원더걸스 출신 신미와 포미닛 출신 현아 역시 솔로로 꾸준히 신곡을 내며 젊은 세대 팬층을 흡수하고 있다.

특히 신비주의를 내세워 팀 위주로 활동했던 1세대와 달리 개별 활동을 하며 멤버별로 인지도를 쌓아올린 것도 장수 비결이다. 다

시 완전체로 뭉쳤을 때 그 만큼 화제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컴백 바람은 무엇보다 자아실현 등을 위한 멤버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아이 셋의 엄마인 선예의 경우 올해 초 tvN '엄마는 아이돌'의 화제성이 복귀 발판을 마련해줬는데, 더 늦기 전에 솔로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못한 자기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룹의 경우 멤버들의 자발성이 없었던 컴백이나 복귀가 불가능했다. 데뷔 10년차가 훌쩍 넘은 이들은 각자 발언권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다. 소녀시대의 경우 티파니, 수영, 서현은 현재 소녀시대를 발굴한 SM 소속이 아닌에도 기꺼이 스케줄을 조정해 함께 하고 있다.

이처럼 그룹 활동의 재개는 예전 영광의 재현을 하겠다는 거창함보다 멤버들 간 우정을 이어가는 동시에 팬들과 유대감을 지속하는 데 있다. 특히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닌 스스로 이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

2NE1의 코첼라 완전체 무대를 주도한 씨엘은 "너무 늦어지기 전에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모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 하희라, 14년만에 연극 무대...임호와 러브레터



배우 하희라와 임호가 연극 '러브레터'에 출연한다.

26일 공연제작사 극단수컴퍼니에 따르면 연극 '러브레터'는 오는 9월 대학로 JTN아트홀 1관에서 개막한다.

미국 극작계의 거목 A.R. 기너의 '러브레터(Love Letters)'를 원작으로 한다. 국내에서도 1995년 초연 후 여러 차례 공연되며 오랜시간 사랑 받은 연극이다.

앤디와 멜리사 두 남녀가 어린 시절부터 14

년까지 편지를 나누며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일생을 그린다.

하희라는 솔직하고 당당한 매력에 넘치는 멜리사 역으로 출연한다.

2004년 연극 '우리가 애인을 꿈꾸는 이후'와 2008년 뮤지컬 '굿 바이 걸' 이후 오랜만에 무대로 돌아온다.

임호는 성실하고 반듯한 성격의 모범생으로 명문대를 졸업하며 탄탄대로를 걷는 앤디 역을 맡는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멜리사와 편지를 나누며 자신과 다른 정반대의 그녀에게 조금씩 매력을 느낀다.

이번 작품은 연출가 위성신이 연출을 맡아 시대적 변화에 맞춰 번역하고 각색한다. 제작사는 "새롭게 선보이는 '러브레터'를 통해 관객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우리를 둘러싼 관계의 회복에 관해 울림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이홉, '빌보드200'·'핫100' 동시 진입...韓 가수 4번째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이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Jack In The Box)'와 타이틀곡 '방화(Arson)'로 미국 빌보드 200 메인 차트에 동시 진입했다.

25일(현지시간) 빌보드 트위터 등에 따르면, 제이홉이 지난 15일 발매한 '잭 인 더 박스'는

솔로로 따지면 슈가(어거스트 디(D))에 이어 2번째

30일 자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파트 '빌보드 200'에서 17위를 차지했다.

제이홉은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함께 2018년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로 처음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한 이후 올해 6월까지 '러브 유어셀프 걸 앤서' '뎀 오브 더 솔: 페르소나' '뎀 오브 더 솔: 7' 'BE' '프루프' 등 여섯 장을 연이어 해당 차트 정상에 올랐다.

특히 제이홉은 한국 가수 솔로 중에서는 처음으로 '빌보드 200' 40위에 두 장의 앨범을 올린 가수가 됐다. 지난 2018년 3월에는 자신의 첫 번째 믹스테이프 '호프 월드(Hope World)'가 '빌보드 200'에서 38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 방탄소년단 다른 멤버들 중에선 해당 차트에서 슈가(어거스트 디(D))가 11위, RM이 26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제이홉의 이번 앨범 더블 타이틀곡 중 한국어인 '방화'는 이번 주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96위를 차지했다. 제이홉이 '핫100'에 진입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제이홉은 2019년 미국 가수 겸 배우 베

키 지(Becky G)와 협업한 '치킨 누들 수프'로 '핫100'에서 81위를 차지했다.

또 이번 앨범 더블 타이틀곡 중 한국어인 '선공공곡인' '모어(MORE)'로 '핫100'에서 82위를 차지했다.

제이홉은 그룹과 솔로를 통틀어 K팝 가수 중 '빌보드200'과 '핫100'에 동시 진입한 네 번째 가수다. 앞서 방탄소년단, 슈가, 블랙핑크가 이 같은 기록을 썼다. 한국 솔로 가수로는 팀 동료 슈가에 이어 2번째다.

앞서 제이홉은 이번 앨범 '잭 인 더 박스'로 미국 빌보드 차트와 함께 세계 양대 팝차트로 통하는 최신(22-28일) 영국 오키셜 앨범 차트 '톱 100'에서 67위로 진입했다.

제이홉은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 주(州) 시카고 그랜드 파크에서 펼쳐지는 미국 대형 음악 페스티벌 '롤라팔루자(LOLLAPALOOZA)'에 메인 스테이지 헤드라이너로 참석한다. 방탄소년단 멤버가 대형 페스티벌에 솔로로 출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 박정현, '하늘을 날다' 오는 31일 발매

가수 박정현이 여름 분위기가 나는 신곡을 발표한다.

26일 본부엔터테인먼트는 "오는 31일 오후 6시 박정현의 새 디지털 싱글 '하늘을 날다(Hot Air Balloon)'를 발매한다"고 밝혔다.

'하늘을 날다'는 박정현의 2022년 프로젝트 4 시즌즈(Seasons)'의 세 번째 작품으로, 지난 1월 '다시 겨울이야', 4월 '이름을 잃은 별을 이어서' 이후 새롭게 선보이는 노래다.

또한 '하늘을 날다'에는 여름을 이야기하는 2곡이 포함된다.

타이틀곡 '하늘을 날다'는 크고 멋지게 날아오르는 열기구의 희망찬 모습을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한 팝 록 장르의 곡으로, 라이브 콘서트에서만 볼 수 있었던 박정현의 에너지 넘치는 록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또 다른 수록곡 '이너서(Inertia)'에는 박정현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첫발을 내딛기 전의 다양한 감정이 담겨있다. 미국에서의 마지막 여름을 표현한 영어 가사를 담은 포크 록 장르의



곡으로, 일렉 기타와 목소리, 가사가 어우러져 따뜻함과 아련함, 애뜻함을 느끼게 해준다.

## 백지영×김숙 '백숙' 프로젝트 음원 발매...송은이 총연출

코미디언 김숙과 가수 백지영이 특급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인다.

김숙과 백지영은 자신의 이름을 한 글자씩만 따서 '백숙'으로 내달 11일 낮 12시 각 음원 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싱글 음원을 발표한다.

송은이는 듀오 '백숙'을 탄생시킨 일등공신으로 이번 뮤직비디오 총 연출 감독을 맡았다. 백지영은 가장뿐만 아니라 작사에도 참여해 '백숙'에 대한 애정을 듬뿍 쏟았다.

송은이는 "말뭉치를 앞둔 내달 11일에 백숙 프로젝트 뚜껑이 오픈된다. 녹음과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김숙은 "녹음하면서 역시 백지영이다 왜 백지영 하는지 알겠다. 노래 너무 잘한다. 울 뻔했다"라며 녹음 소감을 전했다.

정음회가 끝난 후 송은이와 김숙은 "가장 뜨

다음달 11일 디지털 싱글 음원 발표 예정



거운 여름, 울여름을 뜨겁게 감타할, 뜨거운 발라드 '백숙' 음원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

다"라고 전했다.

뉴스